

다이쇼인 절: 기에즈노히

미센 산의 기에즈노히(꺼지지 않는 불)는 806 년에 진언종의 창시자인 구카이(774~835)가 진언종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인 '호마법'(불을 피우며 기도를 올리는 의식)을 위해 피웠던 불로, 1,200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산 정상에서 타오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다이쇼인 절의 승려들은 이 불을 모시고 있는 기에즈노 레이카도에서 밤낮으로 구카이의 불을 지키고 있습니다. 불상 옆에 놓인 긴 촛대를 밝히고 있는 기에즈노히는 또 법당 중앙에 놓인 화로로도 옮겨져 있습니다. 화로 위에는 큰 솔이 올려져 있는데, 그 안에서 끓는 뜨거운 물은 성수라고 합니다. 미센 산의 기에즈노히는 오랜 세월에 걸쳐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여러 장소에 나누어 보관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1964 년 8 월 1 일,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평화의 등불을 밝히는 불씨로 사용되었습니다. 평화의 등불은 전 세계에서 모든 핵무기가 폐기되고, 핵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오를 것입니다.